

공공교육시설을 통한 성인 진로교육의 실태와 문제점

-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시기까지 한 직장에서 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20~50대 응답자가 과반수로 나타남.
- 공공교육시설의 교육 프로그램 이용자 중 56.1%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 시설 이용을 중단함.
-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성인 대상 진로 목표별 관련 프로그램 만족도는 2점대(5점 만점)에 그침.
- 독립된 성인 진로지원 및 서비스 전담 시설의 필요성을 느끼는 응답자는 10명 중 9명 정도(90.5%)로 높게 나타남.
- 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성인 학습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충 및 전문적인 전담 시설 운영의 필요가 있음.

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

| 성인의 진로개발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, 성인 진로교육 현황에 대한 다각적 분석 필요

- 평균 수명의 증가와 사회구조 및 노동시장의 변화 등에 따라, 입직 이후에도 새로운 진로를 탐색·설계하는 등 성인 진로개발에 대한 필요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옴.
 - 2019년 기준 직장 생활 10년 동안 직장인들의 평균 이직 횟수는 4회에 달하였으며, 과거와 비교해 이직 횟수가 증가하고 있음.
 - 성인의 반복적인 진로 탐색 및 설계·재설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, 생애 진로 관점에서의 성인 진로교육 강화가 요구됨.
- 본 고에서는 공공부문의 성인 진로교육의 필요성과 현황, 수요자가 희망하는 운영체계 등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함.

| 분석 자료 :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'성인 진로교육 지원 현황 조사'

- 분석 자료: 2020년 5월 4주부터 7월 1주에 걸쳐 수행한 '성인 진로교육 지원 현황 조사'의 자료로, 총 200명이 참여함.
 - 응답자 중 150명은 공공교육시설(고용복지플러스센터,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등)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, 나머지 50명은 공공교육시설 이용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구성함.
 - 응답자 연령대는 대부분 40대 이상이었으며, 20~30대 응답자 비율은 17.5%였음.
 - 응답자 중 약 47%는 풀타임 근무 중이었으며, 20.5%는 일용직/파트타임/시간제 근무 중이었고, 남은 32.5%는 무직 상태였음. 현재 구직 중이라는 응답자는 41.5%, 아니라는 응답자는 58.5%였음.



〈표 1〉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

(단위: 명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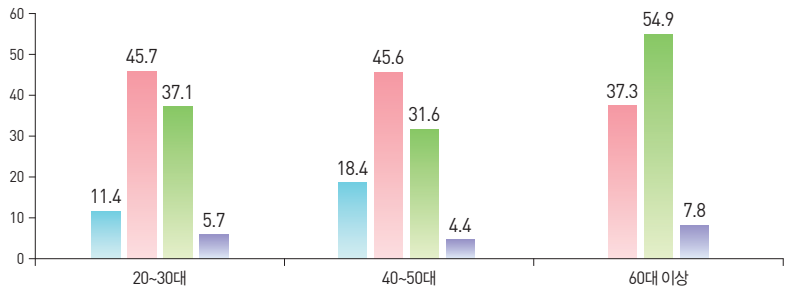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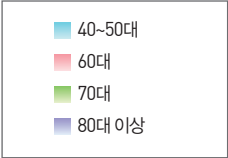
구분		빈도	비율
성별	남	100	50.0
	여	100	50.0
연령대	20대	8	4.0
	30대	27	13.5
	40대	65	32.5
	50대	49	24.5
	60대 이상	51	25.5
재직 여부	풀타임 근무 중	94	47.0
	일용직/파트타임/시간제 근무 중	41	20.5
	무직 상태임	65	32.5
구직 여부	구직 준비 중	83	41.5
	아님	117	58.5

- 조사도구: 서유정 외(2020)의 ‘성인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: 법령 개정을 중심으로’에서 개발한 자체 설문 문항으로 조사함.

02 성인 진로교육의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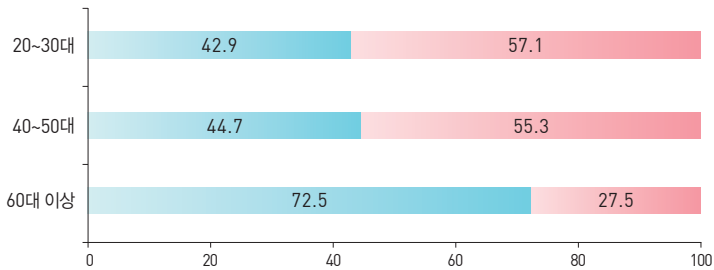
|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시기에 대한 조사 결과, 20~50대의 경우 60대까지, 60대 이상의 경우 70대까지

- 응답자들이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시기에 대해, 20~30대와 40~50대는 60대까지 일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(각각 45.7%, 45.6%), 60대 이상은 70대까지 일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(54.9%).
 - 비율이 높지는 않으나 8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응답도 5% 내외로 나타나, 장기적인 관점의 진로설계와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함.



[그림 1]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시기 (단위: %)

-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연령대까지 한 곳의 일자리(재직 중인 경우 현재의 일자리)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, ‘그렇지 않다’라는 응답이 20~50대 사이에서는 과반수를 차지함(20~30대: 57.1%, 40~50대 55.3%).
 - 이러한 응답 경향을 고려할 때, 은퇴 연령까지 최소 1번 이상의 진로 재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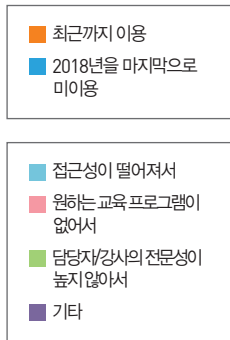


[그림 2] 한 곳의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 가능성 (단위: %)

03 공공교육시설을 통한 성인 진로지원 서비스 장애 요인 및 만족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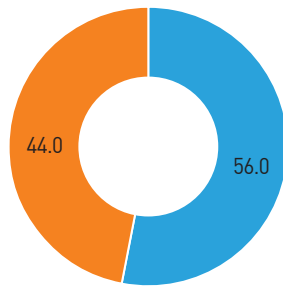
각주

- 1) '공공 교육시설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'고 응답한 결과 분석 (N=150명)
 2) '공공 교육시설을 과거에는 이용했지만 최근(2019년 이후)에는 이용하지 않는다'고 응답한 결과 분석(N=66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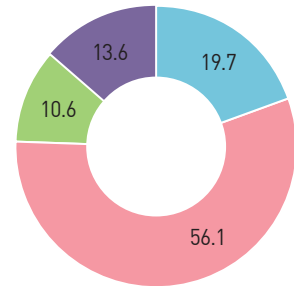


| 성인이 공공교육시설의 이용을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'희망하는 교육 프로그램 부재'

- 공공교육시설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 본 응답자 중 최근까지 '이용'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6.0%이며 최근에는 '미이용'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4.0%로 나타남¹⁾.
- 이용을 중단한 이유는 '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(56.1%)'가 가장 높았고, 그 외 '접근성이 떨어져서 (19.7%)', '기타(13.6%)', '담당자/강사의 전문성이 높지 않아서(10.6%)' 순으로 나타남²⁾.



[그림 3] 공공교육시설 교육 이용 여부 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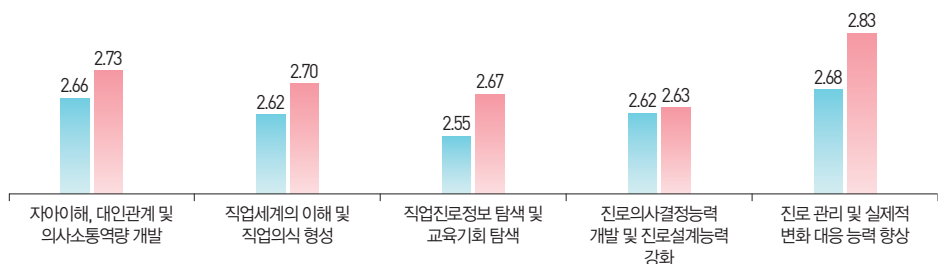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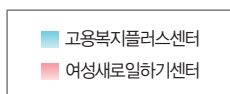
[그림 4] 공공교육시설 교육 이용 중단 이유 (단위: %)

| 공공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성인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진로목표체계 영역별 만족도는 모두 3점 이하(5점 만점)

- 평생(생애) 진로지도의 관점에서 진로개발은 학령기 학생과 성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전생애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, 성인 대상의 진로교육 목표체계 또한 '자아이해'부터 '진로관리'에 이르기까지 진로 목표체계의 전 영역, 즉 진로교육의 모든 요소들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함.
- 다만, 최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진로목표체계 영역별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, 모든 영역에서 3점 이하(5점 만점 척도)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임³⁾.
- 영역별 평균 점수는 '진로 관리 및 실제적 변화 대응 능력 향상(2.74점)'이 가장 높았고, '자아이해,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역량 개발(2.69점)', '직업세계의 이해 및 직업의식 형성(2.65점)', '진로의사결정능력 개발 및 진로설계 능력 강화(2.62점)', '직업 · 진로정보 탐색 및 교육기회 탐색(2.60점)' 순으로 나타남.

각주

- 3) '공공교육시설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'고 응답한 결과 중 최근 이용 시설 유형이 '고용복지플러스센터 (N=47)', '여성새로일하기센터(N=30)' 그룹 대상 분석 / 1점=매우 불만족 ~ 5점=매우 만족



[그림 5] 공공교육시설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진로목표체계 영역별 만족도 (단위: 점/5점 만점)

04 수요자가 희망하는 성인 진로교육 운영체계

| 독립된 성인 진로지원 및 서비스 전담 시설에 높은 필요와 요구 확인

- 성인 진로지원 및 서비스 제공 시설 중 이용하기 편리한 교육시설에 대해, 전반적으로 온라인과 주민센터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나 연령대에 따라 세부적인 선호도는 다소 차이가 있음.
 - 온라인과 주민센터 외에, 20~30대와 60대 이상은 평생교육센터를 주로 선호하였고 40~50대는 고용복지

플러스센터를 선호하였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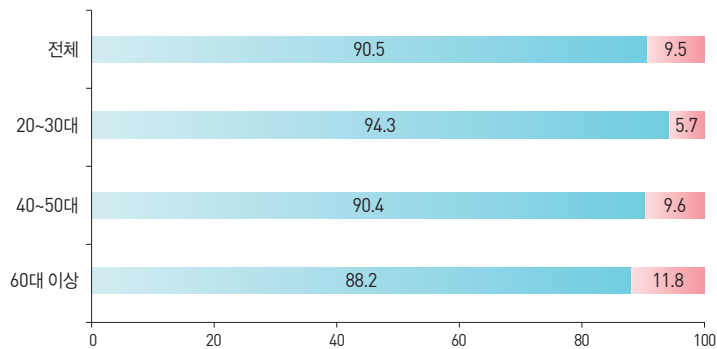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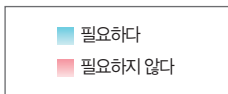
– 주민센터나 평생교육센터에서의 성인 진로지원 및 서비스 확산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.

〈표 2〉 이용하기 편리한 진로지원 및 서비스 제공 시설

(단위: %)

구분		온라인	주민센터	평생교육 센터	고용복지 플러스센터	여성새로 일하기센터	시민대학	민간교육 시설	기타
연령	20~30대	25.7	25.7	20.0	17.1	8.6	0.0	2.9	0.0
	40~50대	30.7	24.6	15.8	22.8	1.8	0.9	2.6	0.9
	60대 이상	25.5	35.3	19.6	17.6	0.0	0.0	2.0	0.0

- 현재 운영되는 공공교육시설 외에 독립된 형태의 성인 진로지원 및 서비스 전담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조사 결과, 전반적으로 10명 중 9명 정도(전체 평균 90.5%)가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.



[그림 6] 독립된 성인 진로지원 및 서비스 전담 시설의 필요성 (단위: %)

05 시사점

- 직업 생활을 지속하는 시기 동안 일자리를 옮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성인이 과반수를 넘는다는 점에서, 성인의 진로설계 및 재설계를 돕기 위한 진로지원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음.
- 성인이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공공교육시설의 이용을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'희망하는 교육 프로그램 부재'로 나타나, 교육 프로그램 확충이 요구됨.
 - 이는 현재 공공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내용이 성인 학습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. 공공교육시설의 성인 진로교육 프로그램 구성 시 정교한 요구분석 결과에 기반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·운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.
- 공공교육시설의 성인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진로목표체계 영역별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, 진로목표체계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이 높음.
 - 이는 진로목표체계 영역별 프로그램 구성이 미흡함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,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영역별 (자아이해, 직업세계 이해, 진로정보 탐색, 진로설계, 진로관리 등) 진로개발이나 역량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. 따라서 성인 진로목표체계에 대한 이해, 그리고 수요자들의 실질적인 요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, 각 영역별 필요/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설계 및 운영할 필요가 있음.

서 유 정 (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)
이 재 열 (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)
이 윤 진 (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)